

제 8 장

결 론

- ▶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 ▶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 ▶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 21세기의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지식기반 경제체제이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에는 지식이 경제를 만들어 간다. 지식이 경제를 주도한다. 지식이 경제를 이끌어 간다.
 -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사람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중요해 진다.
 - '일하는 보람'과 '사는 행복'이 경제의 핵심이 된다.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 중 「가장 좋은 것」(Best Practice)들이 모여 문명을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
- 경제성(효과성)이 높은 지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다(Effective Knowledge Accelerates Economic Changes). 경제성이 높은 지식은 일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에 의해 인간 속에 체화 된다.
 - 정보기술에 의해 글로벌리제이션은 이미 본격화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흩어져 정보통신을 하며 각자의 정부에 영향을 끼쳐 글로벌문제에 대응토록 한다.
 -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글로벌기업은 시장분석, 기획, 자본조달, 원재료구매, 생산, 배송, 애프터서비스, 자금회수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장소에서 가장 빨리 고객에게 상품과 용역을 제공한다.
- 이러한 지식생산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디지털기술에 의해 바이오텍과 유전공학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 2500년 전의 히포크라테스 혁명은 유전공학이 인류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헤치면서 우리시대에 다시 가능해졌다.
 - 이제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 새 기술이 우리의 존재양식을 바꿀 것이며 국가경영의 틀은 이러한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초에 세계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달성하고자 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최대한도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를 원한다.
 - 스스로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를 원한다. 어느 경제주체도 어느 다른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나라' 이기를 바란다.
- 우리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유일한 것은 '두려움'(Fear) 뿐이다. 주어진 자유가 남용되리라는 '우려'이다.
 - 자유는 결코 남용될 수 없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 하이에크는 자유야말로 법을 정의로운 행동규칙으로 만드는 원칙이라 했다. 자유는 법이 지배해야하며 다른 어떤 것의 지배에 의해 대체 될 수 없다. 히틀러 시대의 파시즘에서 보듯이 모든 법이 자유를 보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원칙이 설 때 자유가 정의로워 진다.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국민의 창조적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만든다.”

정진호(1997)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유일한 최고(Only One and Number One)가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도약이 이루어질 때 1980년대 미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한 「Number 1」 전략이었다.
 -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해서 선두주자가 되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후발 추격자들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었다.
 - 매우 느린 변화의 시기였다. 동종업종 안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열심히 잘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었으나 우리가 앞으로 겪게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는 완전히 새롭다.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은 지금 앞서가는 선진국보다 더 좋은 기업이론과 경쟁모델을 만들어 이들을 2-3배쯤 앞서는 세계 유일의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내어 세계 유일의 경제강대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 현재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치는 약 3만 달러이다. 그 2배내지 3배는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실질 국민소득이 7배로 오르는데 산업화를 시작한 1860년도부터 1980년까지 120년이 걸렸다. 우리 나라는 1960년 80달러 일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125배)가 되는데 35년이 걸렸다.
 - 한국의 7천 달러 수준의 소득이 2020년 안에 10만 달러 수준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것을 해내야 하며 한국인의 창조적 두뇌가 그 엔진이 되어야 한다.
- 자유를 주고, 법을 세우고, 타협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념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양보 없는 실천을 해야 한다. 자유를 주고 법을 세우고 타협 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앞서가기 전략을 실천해야 대한민국에서 세계 유일의 최고기업이 나오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춘다.
 - 싱가포르와 같은 철권통치에 의한 자유질서 보장이든,
 - 홍콩과 같은 자유방임 무간섭 원칙이든,
 -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에 의한 자유경쟁이든
 - 그 기본은 경제적 자유의 확립이다.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핵심 경제주체이다. 글로벌 경제 안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유시장의 자유경쟁에 용감한 ‘시장을 아는 행동주체’이다.**
 - 「반듯한 가정」은 일터로 나갈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 함께 쉬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문화와 전통을 심는 핵심 경제주체이다.
 - 「강한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지성자본이 축적되는 학습조직이며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어 기업종사자를 보상하는 가치창조와 보람실현의 도구이다.
 - 「총명한 정부」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명한 시장참여자가 되어 변화를 촉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창출하는 건국이념을 실천하는 글로벌 지식정보공동체이다.
-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지원세력은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단을 정보 지식 생산사업의 도구로 쓰는 언론이다. 대학·연구소·언론 모두가 변화에 용기를 갖고 개혁에 앞장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촉구하는 균형감 있는 ‘총명한 제안자’이다. 핵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돕는 현명한 지원세력이다.**
 - 「열린 대학」은 평생직장을 허락하지 않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의 내용과 구조를 끊임없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바꾸어 나가면서, 현실세계(Real World)로부터 얻은 현실지식(Real Learning)을 끊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면서 변화를 촉발하는 두뇌조직이다.
 - 「돈버는 연구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불가능의 한계에 도전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지적모험자산의 창조자이며, 세계 최초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창조된 지식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지적자산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혜로운 언론」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신을 시도할 지식산업이다. 디지털리제이션은 정보의 품질을 높여 무지하게 많은 양이 매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출되고, 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저장되면서 인간의 지적활동과 풍요로운 삶,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그리고 생명체의 존중을 이 땅에 심어간다.
- **한나라의 장래는 그 구성원의 방향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의 핵심 방향 결정자는 대통령, 국회, 정당이다. 희망을 주는 대통령, 법 만드는 국회, 준비하는 정당 모두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체제의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여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이다.**
 - 이들은 모두가 국가행동의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효과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올바른 제도와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액션을 취하는, 신뢰감을 주는 진실한 지도자들이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성은 생명이다.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창조적 능력이 살아난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종합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여야한다. 꿈을 주고 희망을 심어야 한다.